

Tremper Longman 박사,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세션 3,

1단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육적 적들과 싸우십니다.

2단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신다

© 2024 Tremper Longma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은 전사이다(God is Warrior)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Tremper Longman입니다. 이것은 세션 3, 1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육의 적들과 싸우십니다. 2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전투 전, 전투 도중, 전투 후에 일어난 일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전쟁의 종교적 성격을 알게 되었고, 적어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제가 1단계라고 부르는 특정 전투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육적 적들과 싸우시는 전투의 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 활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에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종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마르둑이든 가나안의 바알이든 창조주 신은 물, 바빌론의 티아맛, 로단을 포함한 암과 암의 집단을 대표하는 신들과 싸울 것입니다. 리바이어던(Leviathan)에 해당하는 우가리트어(Ugaritic).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창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갈등의 힌트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창조물을 취하셔서 그것을 내 친구 존 월튼(John Walton)이 기능적이고 거주 가능하며 조직화된 질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사라기보다는 예술가나 조각가의 입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물론 창세기 2장의 끝 부분에서는 그 상황을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고, 서로 조화롭게 살고, 또한 창조 자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황을 묘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뱀의 기원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멀어지게 꾀어 성공시키려는 사악한 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죄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유형의 무질서, 혼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옷의 형태로 은혜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23절과 24절에서 “그래서 그룹들은 흥미로운 인물들이다”라고 말할 때 영적 군대를 지휘하는 전사로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의 군대입니다. 이제 나는 종종 미국 청중들에게 케루빔을 하나님의 하늘 군대의 봉인 6팀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수호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매우 가까운 것은 천사들, 특히 케루빔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케루빔을 에덴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중에 일부 레위인이 거룩한 성소의 문지기가 될 곳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지금, 하나님이 전사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하고 축하 행사에 집중할 때 말했듯이, 출애굽기 15장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용사로 명시적으로 불리신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이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힌트이지만 창세기 14장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찾아온 동방의 네 왕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약탈하고 롯을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모아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 네 왕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전리품과 롯을 되찾을 때, 이런 신비한 인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인사하면서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전체적인 교훈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살렘 왕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적들을 구원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둘 다 아브라함이 싸웠지만 그들이 이 싸움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상대로 승리하신 사건과 출애굽기 15장에서 기념한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돌아와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과 육의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1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4단계와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투가 영적인 힘과 권위를 향하도록 강화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록 구약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투의 어렵פות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은 신약에서와 같이 전염병과 같은 장소로 초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잡고 돌아와서 재앙을 우리의 영적인 힘에 대한 애굽의 신들과의 하나님의 전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번째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약성서의 1단계에 대한 예가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여리고 전투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정복의 모든 전투는 이 1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 가 아이를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2단계에서 아이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의 동맹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전투에 나가기 전이나 그 땅의 백성들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관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은 아이 전투 이후의 여호수아 9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교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친 말을 타고 상한 음식을 들고 나타나 그들은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당신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신명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땅 밖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8절에서와 같이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너희 종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성을 인하여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하되 그들과 조약을 맺느니라.

우리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가 이집트에서 행한 모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주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세덱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동맹을 모으는 이유에 대한 가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가나안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각각의 통치자를 가진 여러 도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 위협에 직면한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야무스, 아기스, 에글론의 도시들 사이에 동맹을 맺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으니 올라와서 내가 그를 치는 것을 도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낫을 연장하시는 유명한 전투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낫이 길어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군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벳호론에서 아세가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 때에 내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만 낫을 연장하고 우박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여기서 진정한 승리자임을 인식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 전차를 갇히게 하시는지, 일종의 무기로 자연의 힘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진흙이든 뭐든.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제는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사사기의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깊은 결함이 있는 개인을 통해서도 승리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옷니엘, 에훗, 드보라 같은 사람들로부터 갈수록, 특히 삼손에 이르게 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삼손은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시다시피 조금 어두우면서도 짧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에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아마도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침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글론이라는 이름은 살진 송아지를 뜻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자기에게 오게 하여 에글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주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에훗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과 함께 보냈습니다.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양날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뚱뚱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십시오. 물리적 설명이 매우 드물다고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특징 짓거나 줄거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손잡이로 묘사하는데, 이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일이며 실제로는 나중에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은 로마 단어, 원손잡이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는 불길하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엔 그가 어떻게 보안을 벗어났는지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은 예전의 보안이 아니라 오늘날의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오른쪽 허벅지가 아니라 왼쪽 허벅지가 오른손잡이인 걸 보면 아마 검진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는 암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길갈 근처의 돌상에 이르자 그는 에글론으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제가 왕께 드릴 은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말했고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에글론이 에훗을 놓아준 이유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에훗과 낭만적인 대화를 하자는 초대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화장실에서 그를 발견한 이유입니다.

에훗이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배를 찔렀더니 칼날이 들어간 뒤에 자루가 들어가 창자가 흘러나왔느니라. 에훗이 칼을 뽑지 아니하고 기름이 그 칼을 덮었더라.

그런 다음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서 뒤에서 다락방 문들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하인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궁전 안쪽 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거라 말하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다렸으나 그가 방문을 열지 않자 그들은 열쇠를 가져와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죽어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도망갔습니다. 그는 돌 신상들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가 거기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산지에서 그와 함께 내려오매 그와 함께 하였더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이어지는 요단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 약 10,000명 가량을 쳐죽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하고 강했습니다. 한 명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고 그 땅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대적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사이신 하나님은 이 많은 이야기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억제되어 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사사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사시대에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이나 17절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이어서 다시 예를 늘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 다른 기간 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 이는 다윗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으러 온 힘을 다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것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 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물이 터짐 같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치셨느니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곳에 우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갔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흠여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니 이르시되 곧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미루나무 수풀 앞에서 그들을 공격하라 하시니라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움직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네 앞서 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미루나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당신보다 먼저 쳐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1단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과 육의 적들과 싸우시는데 이에 대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단계라고 부르는 것의 예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 예는 무엇인가요? 그럼 다시 정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전투

직후에 아이 전투가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제 아이의 위치는 여리고 서쪽에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약속의 땅으로의 첫 번째 이동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이제 아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아이가 히브리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버리다, 말하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이다. 그다지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여리고를 막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들은 도시 주변을 행진했습니다. 7일째에는 그 주위를 7번 행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도시를 차지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작은 병력을 보냈을 뿐이고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슬픔에 잠겨 넋을 잃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전쟁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탈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 얼마를 빼앗아 자기 장막에 묻어 두었다는 사실을 많은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쫓겨난 후 처형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그 골짜기를 아골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조금 뒤인 사무엘상 4장과 5장 첫 장에 사무엘이 청년이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엘리가 재판관입니다. 엘리에게는 군대를 이끄는 사악한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고 패배하며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와 동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쁜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를 굽적이며 떠나갑니다. 아,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들이 신뢰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기, 그 권력 기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징후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얻었고 그들의 죄로 인해 법궤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하도록 허락하셨고 법궤는 블레셋 도시로 운반되어 그들의 최고 신인 다곤과 함께 성전에 놓여졌습니다. 마치 다곤이 야훼에게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종 고대 근동 사람들, 적어도 그들 중 다신교인들이 우리의 신이 당신의 신보다 강하고 당신의 신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야기에 따르면 다음 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다곤의 신상이 야훼 앞에 얼굴에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 세웠고 또 다시, 이번에는 머리와 손이 부러지고 질병이 도시를 휩쓸고 있는 것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이유는 야훼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예 여호수아 5장,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 나도 너의 변덕에 따라 행동하는 너의 신이 아니다.

이제 세 번째 예는 가장 극적이며 여기서 우리는 포로 생활을 시작한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예루살렘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가 필요하거나 그들을 버리시며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수년간 경고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그룹들이 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이 버림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뵈었을 때 그분은 예루살렘의 패배를 준비하기 위해 성전을 버리시면서 감람산 너머에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애가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어성경에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종 간과되기도 하는 매혹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애가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을 각각 애도하는 다섯 편의 시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장에 22개의 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물론 22절로 세 번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장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Aleph로 시작하여 Beit, Gimel, Dalet, Tav까지 이어지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를 쓰는 삼합체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장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장은 66개입니다. 따라서 처음 세 구절은 Aleph로 시작하고 다음 세 구절은 Tav 까지 Beit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4장은 1장과 2장의 패턴으로 돌아가 22절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장은 22절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쌍행체가 아닙니다. 곡행법의 목적 중 하나는 아마도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애가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잊었다고 말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로대가 끊어지는데 2장부터 한 부분을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애가 2장에는 여호와께서 어찌 그리 진노의 구름으로 딸 시온을 덮으셨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노하시는 날에 그분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느니라. 그분은 진노하셔서 딸 유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는 그 나라와 방백들을 불명예스럽게 땅바닥에 엎드리뜨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원수가 접근할 때 오른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맹렬한 불처럼 야곱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처럼 활을 당기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원수처럼 보기에 좋은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진노를 딸 시온의 장막에 불처럼 쏟으셨으니 여호와와 원수 같으시 도다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그 모든 궁궐을 삼키시며 그 견고한 성을 훼파하셨도다

그리고 애가 2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원수처럼 치러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2단계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전사로서 그들을 대적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앞서 신명기가 언약 갱신 본문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조약 언약에서 법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서의 계약뿐만 아니라 조약에서도 법 뒤에는 축복과 저주가 따릅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음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이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27장과 마찬가지로 축복과 저주의 목록의 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축복과 저주 중 일부가 전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를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방향에서 너희에게 다가오다가 일곱 방향으로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15절에서는 저주를 바꾸는데,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포함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한 방향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다가 일곱 방향으로 그들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네 시체가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불순종할 경우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는지 기억하십시오. 특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에 깊이 정통하며, 본질적으로 그가 하는 일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선지자들을 성약의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고소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1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과 육의 적들과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2단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심을 3단계로 돌릴 것인데, 이는 후기 선지자들 중 일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사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은 전사이다(God is Warrior)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Tremper Longman입니다. 이것은 세션 3, 1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육의 적들과 싸우십니다. 2단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